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필수불가결한가?

001반 202211194 여호진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필수불가결한가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한다. 현대 우리의 삶에서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는 누구에게나 한번쯤 들어봤을법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율경쟁체제에서 현재의 능력주의는 이미 각자마다의 출발선을 달리하는 달리기와 같다. 또 누군가는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다. 출신지, 인종, 성별, 나이, 재력 등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능력주의는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능력주의가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위계층의 특권을 견고히 하는 세습귀족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대학교의 수시입학 고등학교 상위 20개를 보면 특목고가 5개, 자사고가 7개, 영재학교가 8개로 일반고등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것을 알 수 있다. 선천적 능력이 지역이나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라면 이들 기관의 합격생들은 지역별, 계층별 인구수와 비례하여 나타나야만 한다. 또한 2013년 미국의 명문대학교 Stanford 대학의 졸업생 가구의 중위소득은 167,500달러였다. 소득상위 0.1%출신이 3.5%, 상위1% (연소득 63만 불 이상)출신이 17%, 상위5%출신이 39%, 상위10%출신이 52%, 상위20% (연소득 11만 불 이상)출신이 66%였다. 하위20%출신은 4%. 결과적으로 중산층(2,3,4분위)출신은 30%에 지나지 않고 상위1%출신이 하위50%출신보다도 많았다. 이는 능력주의가 개인의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지 않고있고 그 부모의 재력과 능력, 혹은 출신등을 함께 평가한다는 뜻이다. 즉 개인의 능력만을 평가하고 인재를 찾아내는 능력주의의 본질이 현대사회에서는 흐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

현재의 능력주의는 계층이동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은 세습되고있다. 먼저, 조선시대 때 부터 과거시험이라는 형태로 능력주의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능력주의에 대한 평가는 현재 긍정적이지 않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 계층은 중간층이 가장 높은 비중(47.3%)을 차지했지만, 중하층 이하로 느끼는 국민이 43.9%로 중상층 이상(8.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전체 응답자의 44.0%인 반면, 계층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국민은 15.8%로 크게 낮았다는 설문조사 통계를 내놓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능력주의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지 못함을 뜻한다. 또한 2010년도 미국 가구 중 상위 10%가 총 가계 순자산의 74.5%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순자산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부의 격차를 보여준다.부자들이 보유한 부는 대부분 임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산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도 소유한 자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몇 배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부를 축적할 수 없는 2030세대의 청년들, 즉 더이상의 계층이동이 힘들것으로 생각되는 한국의 청년들은 주식과 가상화폐와 같이 리스크가 큰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21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된 10명중 6명은 2030세대 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적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더욱 부를 증대할 수 있고,

이 부유함이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부가 세습되는 형태라는 것임을 의미하고 수준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능력주의란 더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힘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부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 무기력을 느끼게 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는 능력을 인정받은자에게 오만을, 그렇지 못한자에게는 굴욕을 준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이를 승자와 패자라고 표현했다. 승자는 자신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고, 패자는 그런 승자를보며 오로지 자신의 잘못, 즉 자신에게 능력이 없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 생각하며 자신을 책망한다. 이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한 능력주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본주의의 자율경쟁체제에서 부의 양극화는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능력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돌파구라고 말할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신분과 출신, 부모의 배경등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증명하여 평가받는 능력주의가 그 외의 요소들이 평가받고 있는 현재의 능력주의 사회가 된 지금, 모든 사람은 신분, 출신, 성별, 나이등의 요소를 제외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지급되지 않고있다. 이는 전에 작성한 미국과 한국의 대학 입학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전 세계의 사실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이클 샌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능력주의가 계층의 이동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틀린 생각이므로 신화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능력주의의 신화를 깨부셔야 한다고 말했다. 능력주의의 신화를 부숨으로써 부의 상위 계층, 기득권층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오로지 자신만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착각이 없어지게 되고 상위계층의 겸손함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상위계층의 자만으로 분노한 중산층의 분노로 표출되던 포퓰리즘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위협이 없어질 것 이라 말했다. 즉 마이클 샌델은 겸손과 도덕이 현재의 공정한 사회정의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것이라 주장했다. '엘리트 세습'의 데니얼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상위계층의 자녀, 책에서 엘리트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에게 최고급 교육을 집중하는 대신 학생들을 평등하게 입학시키고 교육하는 포용성이 필요하며, 엘리트 근로자들에게 집중된 생산이 중산층에게도 돌아가게끔 중간숙련 노동자를 부활시키자 말하고 있다.

나의 생각엔 현재의 능력주의가 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주워지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엘리트 인력을 포기하면서 까지 중산층이나 사회적약자에게 기회를 돌려야 하나 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더욱 오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가 능력주의에 의한 엘리트 사회가 되어가며 위험해진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란 분명한 문제가 있음은 확실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고민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마이클 센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2020.12.01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 세종서적.2020.11.10.

대한민국. 통계청. 사회조사

RISS. 동국대학교 교수 윤초희. 우리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경기신문